

# 情報化時代를 앞서가는 光云大

曹 武 成

(光云大 總長)

## 1. 韓國 電子工學의 嚆矢

본교의 前身인 朝鮮無線講習所가 설립된 것은 1934년이다. '30년대는 日本帝國主義가 한반도의 植民地化 작업을 완료하고 한국을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하여 전쟁을 개시한 연대로 기록되는 어두운 시대였다. 同 강습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電子時代를 예견한 花島 曹光云博士가 운영하는 光云電氣商會를 중심으로 電氣技術者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시 中區 蓬萊洞에 문을 열면서 창설된 것이다.

당시 아무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無線講習所의 창학은 암울했던 식민지 민중에게 專門的 技術教育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光云은 한국 전자공학의 효시요,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수 많은 전문기술인을 배출하여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 왔다. 민족의 살 길은 전자공학의 진흥이라 믿었던 화도선생의 先見之明은 지금에 와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朝鮮無線講習所 제1회 강습생 17명 중 '35년에 배출된 11명은 일본의 저명한 메이커에서 기술을 습득하였고, 그중에서 실력있는 졸업생은 광운전기상회의 각 지방 지점과 출장소의 기술사원이 되었다. 그후 4년 뒤인 '40년 5월

피나는 노력과 투자로 시설을 확충하여 조선무선강습소를 朝鮮無線工學院으로 개칭하였다. '48년 1월에는 臨時教育施行令의 반포에 따라 조선무선공학원은 財團法人 朝鮮無線中學校의 인가를 받았으며, 화도선생은 校長 겸 財團理事長에 취임하였다.

당시 蓬萊洞은 산만한 주위환경과 협소한 부지 등으로 학교로서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시 경기도 양주군 硯村(현재의 月溪洞 켄퍼스) 일대에 넓은 대지를 구입할 계획을 세웠다. 원래 봉래동에 있었던 목조 2층 건물은 전쟁 말기인 '44년 1월에 인근 가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全燬되어 버렸다. 다행히 그때 당시의 액수로 거액인 20만 원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保險金을 받아 큰 어려움없이 재건에 착수할 수 있었다. 또한 '49년 4월, 일제시대 日本人 秀才들만 就學할 수 있었던 總督府 遞信廳 산하 朝鮮無線高等學校(일제 때 한국인은 몇 사람밖에 다니지 못한 특수학교)를 引受하게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보험금 덕택으로 朝鮮無線通信高가 있던 교지를 중심으로 1만 5천 평의 방대한 토지를 買入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硯村校舍는 行政上으로 경기도 양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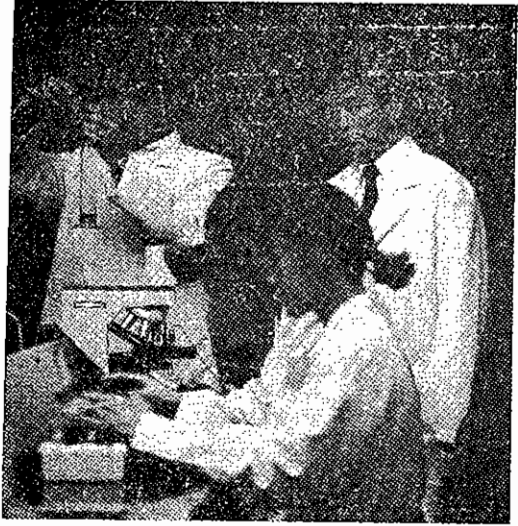
노해면 월계리였으며, 미아리 고개에서부터 걸어 다녀야 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다. 이 일대가 주로 벼루를 만들던 곳이라는 연유로 이름지어진 硯村은 '63년 1월 서울시의 行政區域 변경에 따라 서울시 월계동으로 편입되었다.

## 2. 科學立國·自立精神의 唱導

당시 自然科學 분야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특히 電子工學이나 有·無線通信의 경우 이에 대한 실제적인 理解와 認識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애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독특한 敎育用 資材의 구입과 복잡한 實驗實習을 위한 시설 구비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사실 오늘날에는 現代産業이나 宇宙科學·國防科學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通信·情報産業이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50년 이른봄 技術科 26명, 通信科 47명을 조선무선중학교의 이름으로 졸업시키게 되었을 때 느꼈던 박찬 감격을 설립자는 “그 卒業生들을 다 보내고 난 뒤 텅 빈 교실 안에서 며칠 전까지 며칠씩하던 그들을 생각해 보는 나의 눈에는 기쁨이랄까 서운함이랄까 그런 복합된 感情의 눈물이 흘러 내렸다”고 적고 있다.

본교는 화도선생의 생활 자세와 그 정신에 淵源을 둔 뿌리 깊은 이념을 지니고 있다. 즉, 선생의 生涯를 일관해 온 實用主義 정신과 民族的 試鍊을 극복하고 힘있는 민족이 되기 위한 方案으로서의 교육, 특히 技術敎育을 제시한 生活理念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본교의 創學 이념은 勤勉誠實·儉素節約·探究實踐의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創學理念은 한마디로 自立精神의 자세를 확립함에 있다. 자립정신의 자세는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기 위해 근면성실하고, 정직한 생활인이 되기 위해 근검절약하며, 미래의 국가사회를 위해 탐구실천하는 실천중행의 생활화로 구국·자주·자립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인간의 보람과 가치를 생활 속에서 추구하려는 인격의 도야를 뜻하는 것이다.



▲ 광운대는 스스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創造力과 應用力을 갖추게 하여 職業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敎育한다.

## 3. 東國電子工科大學으로 設立

본교는 '63년 東國電子工科大學으로 설립·인가되면서 전자공학과·응용전자공학과·통신공학과·무선통신학과의 4개 학과가 설치되었다. '64년 초대 曷應天 理學博士가 학장으로 취임하였고, 그해 학교명을 光云電子工科大學으로 바꾸었으며 '72년 2월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FACOM 230-15형 電子計算機를 도입·설치하여 光云電子計算所를 부설하였다. '77년 10월 校名을 光云工科大學으로 개명하였으며, '79년에는 大學院 설립 인가를 받아 전자공학과·전자통신공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하였다. '83년에는 학교명을 光云大學으로 개명하는 한편 FACOM-M140F 電子計算機를 도입하였으며, 그해 10월 大學院 석사과정에 전자계산기공학과를, 박사과정에 전자공학과 등 6개 학과를 개설하였다. 또한 學部制度를 도입하여 工學部·理學部·商經學部·法政學部 등 4개 학부 주·야 16개 학과 4,400명 정원의 대학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84년에는 研究와 敎育專用 VAX11-750계산기를 도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무역학과·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전자계산기공학과를 설치하였다. 또한 産業情報大學院이 설립되어 산

업정보학과·정보관리학과와 석사과정도 개설되었다.

'87년 10월 29일, 창학 이래 꾸준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광운대학은 대망의 綜合大學校改編과 더불어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제어계측공학과 등 6개 학과를 신설하여 工科大學·理科大學·人文社會科學大學 등 3개 단과대학을 편성하고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學問의 綜合化·內實化를 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학원 박사과정에 행정학과를 신설하였고, 산업정보대학원의 정원을 증원하였다.

'88년 2월에는 초대 總長으로 曺武成 哲學博士가 취임하였고, 7월에는 건축공학과와 환경공학과가 개설되었으며, 經營大學院이 신설되어 경영학과의 6개 전공과정이 개설되었다. '89년 4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미수교국인 中國의 遼寧大學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신문방송학과를 신설하였다. '90년 경영대학원에 最高經營者 課程이 설치되었고, 대학 부설로 電子計算教育院이 신설되어 정보처리학과 및 전자계산기공학과 2개 학과와 사무자동화과정 등 5개의 6개월 과정을 개설하였다. 컴퓨터 분야의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전자계산 전문가를 사회에 배출한다는 기본 취지 아래 2년과정(주·야)과 6개월과정(야)의 1천 명(입학정원)원생을 수용하여 최상의 시설로 교육하고 있다. 이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바탕으로 대단위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천여 명의 학생에게 교육하려는 광운대의 과감한 투자의 결실이기도 하다. 또한 이해에 電算大學院을 설립하였고, 미국의 미시시피주립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였다.

'91년 현재 본교는 교지 면적 2만 9천 여평, 연건평 10,363 평의 교육시설 위에 학부과정으로 광운대의 유구한 歷史를 자랑하는 工科大學에 전자공학과·전자계산기공학과·전자통신공학과·전기공학과·전자재료공학과·환경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학과·제어계측공학과 등 9개 학과, 理科大學의 전자계산학과·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 등 4개 학과, 人文社會科學大學에는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경

영학과·무역학과·행정학과·법학과·신문방송학과 등 7개 학과로 총 20개 학과 5,977명의 재학생이 학문 연마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大學院에는 석사과정 11개 학과 162명, 박사과정 8개 학과 59명, 산업정보대학원 2개 학과 100명,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개 학과 90명, 전산대학원 2개 학과 90명의 학생들이 학문에 열중하고 있으며, 개교 이후 9,628명의 學士, 대학원 박사 33명, 석사 439명,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95명, 경영대학원 석사 12명이 배출되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유능한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 4. 3년 연속 全國 최고 就業率

勤勉誠實·勤儉節約·探究實踐을 추구하는 광운인의 참 모습은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도 사회에 진출하여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본교는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초학문에 관한 지식을 겸비하고 스스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創造力과 應用力을 갖추게 하여 職業社會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특히 이론적 학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產學協同 체제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理論과 現場實習의 조화는 전국에서 就業率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就業情報誌인 「리쿠르트」지의 집계에 따르면, 본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금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놀라운 底力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2월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보면, 총 869명의 졸업자 중 군입대 69명과 진학 99명을 뺀 701명 중 672명이 취업하여 95.9%의 취업률을 보여 주고 있다.

본교는 설립 당시부터 첨단과학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늘날 전자공학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 가장 특징있는 학과로는 電子材料工學科를 들 수 있다. 현대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電子產業은 인간의 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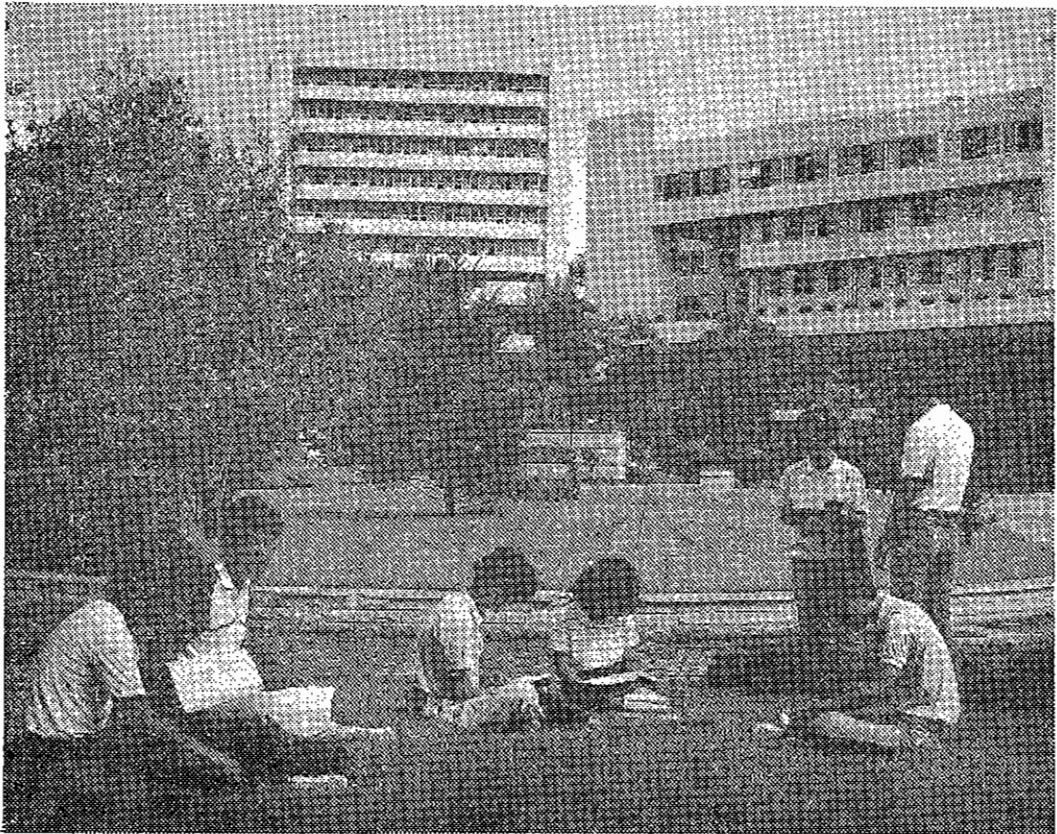
용구에서부터 기계·항공·군사 및 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세라믹, 신소재, 신기능 소재 등 관련 전자재료 분야의 지속적인 개발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컴퓨터 및 통신산업 발전의 핵으로서 電子材料産業은 신물질·신소재 개발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電子材料工學科는 科學立國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電子材料産業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74년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개설되었고, '84년 문교부의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10대 특성학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지원 아래 전자재료에 대한 물성연구, 응용범위의 확대 및 재료기술의 향상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大學 附屬機關으로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개가식 운영을 시작한 중앙도서관과 '72년 발족한 전자계산소, 한국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

는 출판부, 대학인론을 이끌고 있는 신문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가 있다. 附設研究所로는 전자기술연구소, 전자재료과학연구소, 통신과학연구소, 세마을연구소, 전기기술연구소, 정보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전자계산기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기업경영연구소 등이 대학 학문연구의 中樞가 되고 있다.

學生活動으로는 중학생회와 자 단과대학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면학 분위기 조성, 건전한 대학 분위기 조성, 교내 환경 개선, 각종 봉사활동 등 교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자아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매년 5월 20일 개교기념일을 전후로 月溪祝祭와 가을에 열리는 月溪體典 등을 통해 건전한 지·덕·체를 겸비한 全人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활에서 또하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서클활동이다. '광운'의 대표적인 서클로는 '아마추어 무선국(HAM)'을 꼽을 수 있다. 우

▼ 실용주의적 科學精神과 자주·자립의 人本精神 教育이념을 구현하고 創造的 氣風에 찬 과학입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飛馬는 오늘도 웅비의 나라를 펼친다.



리나라 최초로 설립되어 올해로 개국 23주년을 맞이한 아마추어 무선국은 동유럽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와 교신하고 있는데, 그들과 많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학실력도 높고 전문도 넓어지며 전파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전공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본교는 지난 '8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에 있어 전·후기 분할모집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금년 전기 입시에서는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綜合大學體制定着期'를 설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실천하는 단계에 있다. 학문의 종합화와 병행하여 지금까지의 공과대학 성격을 창학이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키면서 사회과학·인문과학 등과의 조화를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문을 이루기 위해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종합대학의 규모에 맞는 조직과 시설의 확충으로 이미 10층 규모의 연구동과 국제규격의 아이스링크, 학생극장이 들어설 문화관이 건축중에 있으며, 인문사회과학대학 및 대학원 건물 건립 등 교육여건의 확보와 제2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시설도 외형적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학문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실이 되도록 과감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 5. 21 세기를 향해 雄飛하는 飛馬 '光云'

21세기 未來를 향해 힘찬 응비의 나래를 펼치는 본교는 올해로 創學 57주년을 맞이하였다. 광운대학교의 표상인 飛馬가 상징하듯 세계 속의 '光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雷武成 總長을 비롯한 250여 명의 우수한 專任教授 및 敎職員은 학생들의 향학 열의에 부응하여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도 각 研究室은 校庭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

본교는 科學技術 敎育을 통한 人本精神의 구현을 敎育이념으로 삼고 있다. 무릇 모든 敎育이 그러하듯 科學技術 敎育의 대상은 인간이며, 科學技術의 함양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그 뿌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랑의 마음을 지니지 못한 인간은 마치 自動화된 機械와 다름이 없으며, 大學에서 배우고 닦은 사람이라면 개인보다 더욱 큰 것들, 곧 이웃과 사회와 민족과 인류의 복지증진에 참여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인간사랑의 實踐躬行을 생활화하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은 實用主義的 科學精神과 自主自立의 人本精神이 함께 어우러진 근면 성실하고 創造的 氣風에 찬 科學立國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